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신목 · 새생각회 회장

명심하자, 낙제발명 조심하라

누구나 압정을 뽑을 때 손톱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리라. 그래서 뽑기 쉽게 하고자 생각한 것이 (나)처럼 추켜 든 것을 생각하여 대발명이라도 한 것처럼 우쭐하여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미 70여 년 전에 출원되어 있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나)처럼 고무판같은 것을 끼워 탄력을 더함과 함께 뽑기 쉽게 한 것도 있다. 이것도 이미 옛날에 출원되어 있다.

(라)처럼 손잡이를 만든 것 때로는 둥근 것을 꽃모양 곤충모양의 의장은 어떻게 하고 출원하는 이도 많다고 한다. 또 압정에 찢려서 혼난 사람도

많다고 보아, (마)처럼 굴러도 결코 침이 위로 서지 않는 것도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나 이 압정이라는 것이 너무 값싸기 때문에 조금만 수공을 더하면 벌써, 값이 2배, 3배로 쯤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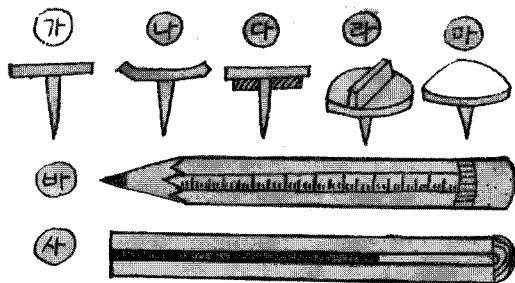
그렇게 되면 특수한 곳 말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들 발명이 빛을 못보는 이유다.

요사이에는 플라스틱의 아름다운 압정까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우리들에게 제일 친근한 것의 하나는 연필이다. 그러니까 연필의 발명 또한 많다. 그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연필에 눈금을 적어 넣어 언제나 자처럼 썼으면 좋겠다.”는 발명이다. 이것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60여년 전에 출원된 것이다. 또 하나는,

“연필이 짧아지면 쓰지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3분의 1쯤 심을 안넣으면 대단히 흑연이 절약된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출원은 되고도 사업화되지 못한 까닭은 (바)의 연필은, 대중의 필요 심리가 일지 않기 때문이다.

(사)의 연필은,



“재료비보다는 공임이 비싸게 먹힌다.”

발명에는 성의 대결 없다

- (1) 통모양의 메리야스천을 쓴다.
 - (2) 중앙에 가위질을 한다.
 - (3) (1)과 (2)를 좌우로 열어서 일직선으로 한다.
 - (4) 앞의 천조각을 (4)가 끌어 내려진다.
 - (5) 재봉틀로 (1)(2)(3)의 곳을 뒤쪽 (5)에 꿰맨다.
 - (6), 이렇게 하면 앞뒤의 크기가 꼭 맞아든다.
- 중앙에 잘린 곳을 넣은 것 뿐 깜찍스러운 고안이다. 이것이 4천만 엔이나 벌어들인 일본 S부인의 발명이다.

S부인이 종이봉투를 써서 몇 번이고 시험하면서 터득했다고 한다. 이 방법은 또 다른 곳에 많은 용도가 있을 것 같다.

양복점을 경영한 S부인. 장난꾸러기의 아들딸이 다섯. 셔어츠는 입히자마자 더럽혀지고, 팬티는 터지고 찢어졌다.

참다 못해 생각한 것이, 팬티는 솔기가 찢어지기 쉽다. 솔기없는 무명팬티로하면 질겨서 오래

입히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본 친구가

“참 좋은 팬티가 됐는데 곧 특허를 내줘요”

서두르는 바람에 생후 처음 특허의 경험을 겪었다. 그 뒤 특허가 나오기도 5년이나 지난 어느날 만딸이,

“엄마! 권리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팔아보면 어때요?”

하고 권하는 바람에 L기업과 절충되어 500만 엔에 사 주었다.

아이디어는 돈과 같다는 것을 처음 깨닫고 모녀가 얼싸안고 기뻐했다.

이런 뒤로 팬티나 기저귀의 연구를 부지런히 했다.

타이즈의 연구는 H사에게 2년간의 사용료로 2천만 엔을 받았다. 럭키타이즈가 그것이다.

아름타이즈는 B사가 봄 동안만 3백만 엔에 사 주었다.

마이크로팬티는 D사에서 첫 해에 권리금으로 1300만 엔과, 고문사원으로 다달이 3만 엔씩 받기로 했다. 이것은 다음 해부터 선전해서 팔리기 시작하여 수 백만 엔이 됐다. 그리고 유럽 여행은 여비를 D사가 대어주었다.

아이디어의 덕택으로 수많은 명예와 돈이 굴러들어왔던 것이다.

S부인 8시의 일요발명학교에 고문으로 항상 출석하여 후배의 지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새로운 모습의 발명부인이다. **발특 9610**

